

# 대규모 특성화 단지 조성 가능한 간척지 활용 연구 강화

농진청, 국제 곡물시장 변동 대응 등 위해 '간척지농업연구팀' 신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국제 곡물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고품질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의 특성화 단지 조성이 가능한 간척지 활용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 식량 생산은 10년마다 2%씩 감소하는 반면, 수요는 2050년까지 10년마다 14%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경지 면적도 2019년 기준 158만1,000헥타르(ha)로 전년보다 0.9% 감소해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간척지는 국가 차원의 식량과 풀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작지이자 첨단농업시설을 갖춘 수출전

진기지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 또한, 고소득 수출 농산물이나 수입 농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가 가능한 농수산식품단지로도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간척지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간척지 활용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국립식량과학원에 '간척지농업연구팀'을 신설했다.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영농권의 제공) 동법시행령 제 29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간척지 영농권의 제공에 관한 농촌진흥청 훈령'이 제정되면서 전담 연구팀 신설이 가시화됐다.

간척지농업연구팀은 앞으로 풀사료와

바이오에너지작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디지털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등 간척지 농업연구를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시설농업을 통한 수출증대 방안을 연구하고, 국내외에서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농기재 산업을 육성하는 등 첨단 시설 재배단지 육성을 위한 발판 마련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김상남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은 "이번 간척지농업연구팀 신설로 간척지에 디지털 농업기술을 접목해 농업적인 이용을 확대하는 연구에 충실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간척지를 첨단수출농업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지난해 전북지역 혼인건수 10여년새 2600건 ↓

김제시 조이혼율·임실군의 외국인과의 이혼 비중 높아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9년 호남·제주의 혼인·이혼 현황 및 분석'에 따르면, 김제시의 조이혼율과 임실군의 외국인과의 이혼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9년 혼인건수는 전남이 7,413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9년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제주가 5.1건으로 가장 높았다.

전북의 혼인건수는 7,005건으로 2009년 대비 2,600건, 조(粗)혼인율은 3.9건으로 1.3건 감소했다.

2019년 이혼건수는 전남이 4,130건으로 가장 많고, 동기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은 제주가 2.6건으로 가장 높았다. 전북은 4,007건으로 2009년 대비 278건 감소했으며, 조(粗)이혼율도 전북2.2건으로 -0.1건을 기록했다.

2019년 평균조혼연령은 제주가 남자 34.0세, 여자 31.0세로 가장 높았다. 전북은 30.3세로 2009년 대비 남·여 모두 2.1세 높아졌다.

2019년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12.6%)과 이혼 비중(7.6%) 모두 제주도가 가장 높았다. 전북의

2019년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10.9%로 2009년 대비 2.1%p 감소했으며 외국인과의 이혼 비중은 5.4%로 3.4%p 감소했다.

2019년 시군구별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전남 나주시가 5.13건으로 가장 높고,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은 김제시가 2.79건으로 가장 높았다.

2019년 시군구별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전남 진도군이 23.33%를, 고창군이 20.69%로 높았다. 외국인과의 이혼 비중은 임실군이 16.36%로 가장 높았으며 무주군(14.55%)이 뒤를 이었다. /김윤상 기자

### 전북공예협동조합, 도내 농가 소상공 돕는 꽃사주기 캠페인

전북공예협동조합(이사장 진정옥)은 20일 창문꽃식물원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꽃사주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산하 40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난달 26일 전체 조합원사들과 함께 전북 지역 꽃과 농산물 사주기 캠페인을 이어가기로 한데 따른 것으로 전북공예협동조합이 두번째로 개최하는 것이다.



전북공예협동조합은 1973년 설립되어 50여년 가까이 전라북도의 전통공예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또한 201개 조합원과 함께 전라북도 공예품대전, 공예명품초대전, 전라북도공예박람회 등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정음슈메이커사업 등 공동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진정옥 이사장은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꽃재배 농가와 화훼 소상공인의 어려운 때, 우리 공예인들이 서로 돕는 협동조합 정신으로 함께 구매할 대전, 공예명품초대전, 작은 화분 하나가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20일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 수업을 받아야 하지만 컴퓨터와 태블릿 PC 등이 없어 원격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노트북 250대를 전주시에 전달했다.

## 저소득층 학생 위한 노트북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개학 맞아 250대 전주시에 기부

국민연금공단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 개학을 맞이해도 학습기기가 없어 수업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돕고 나섰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은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 수업을 받아야 하지만 컴퓨터와 태블릿 PC 등이 없어 원격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노트북 250대를 전주시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기들은 기존 업무용으로 사용했던 노트북으로, 학생들이 원격 학습용으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수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내부 클리닝(세척) 작업 등의 점검을 한국IT복지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마쳤다.

전주시는 전달된 노트북을 전주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 지원받을 초·중·고교생을 선정한 후

해당 학교를 통해 학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박장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설립 반 긴장 반으로 새 학기를 맞이해 활기찬 학교생활을 시작해야 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미래의 주인공 학생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을 위한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이웃돕기 후원은 물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고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꽃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어르신들을 위한 방역물품과 식료품 꾸러미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중기중앙회, 송가인 이모티콘 무료 배포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노란우산이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사장님들에게 웃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란우산 모델 송가인 이모티콘을 무료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모티콘은 21일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에서 '노란우산'을 채널 추가한 5만7,000여 명에게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송가인 모델 송가인 이모티콘을 한 노란우산 모델 송가인의 다양한 제스처와 표정을 담은 16종의 움직이는 스티커로 구성됐다.

이모티콘을 받으려면 카카오톡 검색에서 '노란우산'을 찾아 채널 추가를 하면 되고, 채널 추가한 이용자는 무료 이모티콘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 주요 정보(절세혜택, 복리이자, 압류금지, 고객복지 등)를 받아볼 수 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대한민국 사장님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브랜드 이모티콘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노란우산의 다양한 혜택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125만 고객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전주효천리버클래스 미계약 77가구 등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

한국도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본부장 권창호)는 전주효천지구 전주효천리버클래스 10년 공공임대주택택트 818가구 중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미계약된 77가구(74㎡ 19가구·84㎡ 58가구)를 공급하고 계약포기, 부적격 등을 감안한 예비세대 86가구를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후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 후 무주택 등 자격을 유지하면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일) 현재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당첨자 및 예비자는 전산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기본 임대 조건은 74㎡형 보증금 57백만원, 월 임대료 53만원이며, 84㎡형은 보증금 6,900만원, 월 임대료 59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 계약시 20%, 입주시 80%를 납부한다.

LH에서는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임대료 상호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면 74㎡형은 보증금 1억1,500만원, 월 임대료 28만9,000원, 84㎡형은 보증금 1억3,800만원, 월 임대료 30만3,000원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인터넷 신청접수 및 관련서류 우편접수를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공급 일정은 20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28~29일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다. 이어 5월 6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6월 1~3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063-230-6471~73)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 건강검진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이하 건협 전북지부)는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진료한다고 20일 밝혔다.

바쁜 일상과 업무로 시간 내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평일과 다를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및 종합검진, 채용신체검사, 예방접종(폐렴, 대상포진, A형·B형간염, 자궁경부암 등) 등을 실시하며, 오전 7시 반부터 12시까지 가능하다.

건협 전북지부는 코로나19로 걱정하는 도민들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절차를 거친 사람에 한해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